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February

주간 전남농업

VOL. 223

주간 기상전망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19년 기대되는 전세계 요거트의 4대 트렌드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올해 단감 농사, 맛 좋고 재배 쉬운 '감풍' 품종 어때요?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곡성군, 토양개량제 방치 해결 위해 공동살포 추진

해외 농업 정보

일본, 꼭지를 딸 필요 없는 딸기 신품종

2019년
3월 첫째주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 ~ 4도, 최고기온 : 10 ~ 13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 ~ 3mm)보다 조금 많겠음

2. 주간 농사정보 6

- ▶ 채소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2019년 기대되는 전세계 요거트의 4대 트렌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3

- ▶ 올해 단감 농사, 맛 좋고 재배 쉬운 '감풍' 품종 어때요?

- ▶ 봄 무, 꽃대 옷자람 없이 뿌리가 튼튼하려면?
- ▶ 멸구류 3종(벼멸구·흰등멸구·애멸구) 유전자 이용 종 판별 기술
- ▶ 올해 시설채소 월동 병해충 심상찮다... 예찰 철저히
- ▶ 콩과 메밀의 유전정보를 ‘종자신분증’에 담다

6. 정책 동향 19

- ▶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 ▶ 2월25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모두 해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1

- ▶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한다”
- ▶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 ▶ 곡성군, 토양개량제 방치 해결 위해 공동살포 추진
- ▶ 화순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서두르세요”
- ▶ 영광군, 새콤달콤 맛있는 유실수 나눠드려요
- ▶ 장성군, 토양개량제 공급부터 살포까지 ‘무상지원’
- ▶ 신안군, 포장디자인개발교육 큰 호응속 마쳐

8. 해외 농업정보 29

- ▶ 일본, 꼭지를 딸 필요 없는 딸기 신품종
- ▶ UAE,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의 농작물 재배능력 선보여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3. 01.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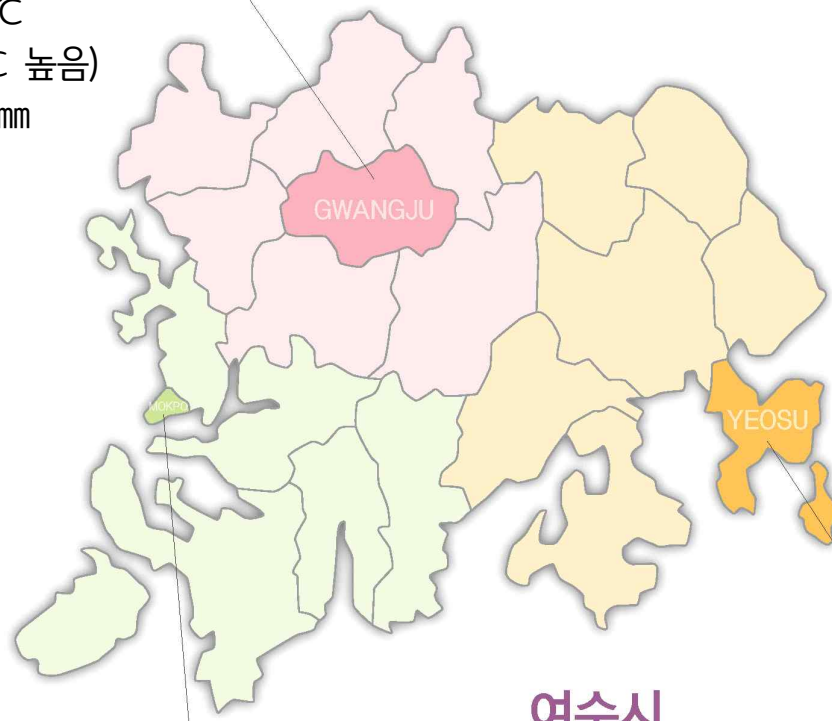
- ▶ “국내 종자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력 추진”
- ▶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 2019년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 '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 ▶ 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
- ▶ 올해 일자리 사업 핵심, “청년·민간일자리 창출”
- ▶ 연분홍색 ‘산수유 생막걸리’로 봄을 느껴보세요
- ▶ 청림한세상

10. 농식품 빅데이터(재배기술)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 41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3℃
(평년대비 2.2℃ 높음)
- 최고기온 : 12.7℃
(평년대비 1.9℃ 높음)
- 최저기온 : 2.3℃
(평년대비 2.0℃ 높음)
- 강 수 량 : 1.7mm



목포시

- 평균기온 : 3.3℃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9.6℃
(평년대비 0.7℃ 낮음)
- 최저기온 : 3.3℃
(평년대비 2.0℃ 높음)
- 강 수 량 : 1.7mm

여수시

- 평균기온 : 4.9℃
(평년대비 3.0℃ 높음)
- 최고기온 : 11.9℃
(평년대비 1.3℃ 높음)
- 최저기온 : 4.9℃
(평년대비 2.2℃ 높음)
- 강 수 량 : 2.2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채소

☀ 마늘 양파

- (마늘 잎 꺼내기) 무공비닐로 멀칭 했을 경우 한지형 마늘의 잎이 2~3매 전개되어 길이가 10~15cm 정도 일 때 잎을 비닐 밖으로 꺼냄
 - 한지형 마늘의 잎이 2~3매 전개되어 길이가 10~15cm 정도 일 때
 - 잎을 꺼낸 후 저온에 노출되면 잎 끝부터 흰색으로 말라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잎 꺼내기 2~3일 전에 미리 구멍을 내어 순화하고,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맑고 따뜻한 날이 2~3일 계속될 때 작업함
 - 잎을 꺼내지 않고 비닐을 일시에 벗길 때는 미리 30~4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 순화시킨 후, 4월상 · 중순경 벗겨줌
- (양파 노균병 방제) 연약한 생육, 물 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발생
 - 월동 직후 기온이 올라가고 안개가 잦거나 비가 자주내리면 적용 약제를 멀칭 된 비닐 위의 흙 속 까지도 충분히 적셔지도록 살포
- (마늘 씨고자리파리 예방) 한지형 마늘 고자리파리 적기방제로 피해경감
 - 파란색끈끈이 트랩을 재배포장에 5개/10a를 설치하여 포획성충을 10일 간격으로 조사(시기 3월 중순~6월 초)

☀ (노지고추) 육묘 중기관리

- (온도) 본엽 2~3매 정도의 발육단계에서 꽃눈 분화 및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주간 25~28℃, 야간 12~15℃, 야간지온 20℃로 관리
- (환경관리) 보온위주 관리이기 때문에 고온장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에 유의하고, 고온이나 저온장해가 발생할 때는 생육에 따라 요소 0.2~0.3% 엽면시비가 유효함
- (유의점) 이 시기는 광합성을 촉진하고 양분전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묘 소질이 우수한 좋은 묘를 육묘할 수 있음

☀ (노지 봄 배추) 육묘관리

- (파종) 3월 상순~4월 하순으로 적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파종하면 추대, 병해충이 심해질 수 있음, 정식 20~30일 전에 실시
- (품종) 만추대성이면서 내병성이고 석회, 붕소 결핍증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여 되도록 적기에 파종하여야 함

☀ (토마토) 환절기 주요 생리장애

- (주요증상) 이슬에 의한 잎 냉해, 미세열과, 동심원상 열과 등
- (발생원인) 환절기 일교차에 의해 발생한 결로가 잎이나 과일에 발생하거나 천장에 생긴 물이 떨어져 맺히면서 피해가 발생함
- (대책)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해뜨기 전에 충분한 가온 실시
 - 장애 잎을 제거하여 잿빛곰팡이병 등 2차 피해를 차단함
 - 엽면시비 자제, 꼭 필요한 경우 오전 중에 실시, 환기 철저
 - 빗물이 온실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관리, 열과에 강한 품종 재배

*출처 : 농촌진흥청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3. 4.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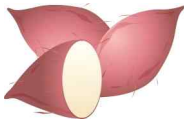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2/25)	1주일전 (2/18)	전년대비
20kg	49,380	49,380	↑ 1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42,500	40,020	↑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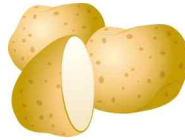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35kg	184,600	184,400	↑ 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200	170,000	153,400	↑ 20.3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kg	36,600	37,000	↑ 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650	27,750	22,693	↑ 64.8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0kg	31,000	31,600	↓ 4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850	57,450	34,023	↓ 8.9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kg	3,700	3,680	↓ 5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25	8,650	7,657	↓ 51.7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8kg	5,500	4,200	↓ 2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25	7,425	6,096	↓ 9.8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0개	55,667	53,333	↑ 1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917	48,583	64,882	↓ 14.2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0개	19,200	19,400	↓ 2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550	26,300	26,040	↓ 26.3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60kg	1,177,200	1,177,200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7,200	1,122,500	753,333	↑ 56.3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kg	85,000	67,000	↑ 6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250	51,500	74,103	↑ 14.7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0kg	125,000	125,000	↓ 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140,000	140,000	↓ 10.7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0kg	12,480	12,280	↑ 11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930	20,450	21,150	↓ 41.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0kg	25,400	26,000	↓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000	28,600	24,760	↑ 2.6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kg	1,520	1,560	↓ 2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30	2,130	2,229	↓ 31.8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5kg	23,800	26,000	↓ 2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500	33,300	31,020	↓ 23.3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개	16,400	17,400	↓ 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900	17,150	19,030	↓ 13.8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kg	30,600	31,200	↑ 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450	23,300	26,100	↑ 17.2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5kg	25,000	23,600	↑ 4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850	16,800	21,950	↑ 13.9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kg	39,800	36,400	↓ 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50	40,600	40,789	↓ 2.4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5kg	51,400	50,400	↑ 10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800	38,000	41,410	↑ 24.1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kg	30,600	29,200	↓ 1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150	35,050	28,474	↑ 7.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0g	7,842	7,775	↓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17	8,221	7,196	↑ 9.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kg	5,539	5,616	↑ 1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802	4,761	5,469	↑ 1.3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30kg	496,200	496,2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9,000	524,667	↓ 5.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kg	11,800	11,200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750	12,250	11,193	↑ 5.4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2kg	7,400	7,000	↓ 1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50	8,550	8,713	↓ 15.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00g	1,600	1,723	↓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78	1,810	1,689	↓ 5.3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30개	4,621	4,662	↓ 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77	5,172	5,715	↓ 19.1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3/4)	1주일전 (2/25)	전년대비
1L	2,621	2,621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1	2,517	2,541	↑ 3.1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3. 04.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750	5,715	5,546	↑ 0.6	↑ 3.7
	거세	6,709	6,600	6,647	↑ 1.7	↑ 0.9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11	3,015	2,967	↑ 3.7	↑ 4.9
	수	3,716	3,688	3,521	↑ 0.8	↑ 5.5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47	3,70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	↑ 2.6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1	34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6	↑ 145.5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03	28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1	↓ 14.9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550	1,3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9.2	↑ 16.3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713	68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5	↓ 17.9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9.8	

2019년 기대되는 전세계 요거트의 4대 트렌드

- 전 세계 요거트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로 최근 몇 년간 성장과 하락 사이에서 급변해왔다.
- 일부 요거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1인당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요거트 시장은 더욱 더 새롭고 창의적인 신선한 맛의 자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몇 년간 요거트 브랜드는 인공첨가물과 방부제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요거트 제품에 대해 당분 함량도 줄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 식감과 맛은 요거트 제품을 간식이나 건강 디저트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식사 균형은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의 생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끔 "잠깐의 즐거움"을 허락하는 것도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 요거트는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최근 몇 년간 중국 시장에는 다양한 요거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 건강식품인만큼 식품 품질에 대한 요구도 높다. 최근에는 과일 맛, 식물 맛, 꽃 향기 등 다양한 맛들이 소비자들 주목을 끌고 있다. 식품 첨가제를 줄이고 건강에 유익한 천연 원료를 강조하는 것이 마케팅 포인트이다.
- 또한 생활패턴이 빨라지면 간편한 포장이 소비자들 제품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올해 단감 농사, 맛 좋고 재배 쉬운 '감풍' 품종 어때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단감 묘목 교체 시기를 앞두고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품종 '감풍'을 추천했다.
- 단감 감풍 품종단감 '감풍' 품종은 '부유' 대체 품종으로 개발했으며, '부유'보다 10일 정도 빠른 10월 하순께 수확해 경쟁력이 있다.
- 특히, '감풍'은 무게가 417g으로 아주 크고 당도도 15브릭스로 높다. 과육이 배처럼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해 식미가 매우 좋다.
- 과실 표면에 열매터짐(열과)이나 꼭지들림 같은 생리장해 발생이 적어 재배도 쉽기 때문에 농가의 반응도 좋다.
- 지난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식 평가회에서 과실 크기·모양·식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앞으로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 묘목 구입에 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061-330-158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단감의 국내 개발 품종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기술이전을 요구하면서 품종 보호를 위한 '국외품종보호'를 출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배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단감 '감풍' 품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맞춤형 재배법 확립 등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라며,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국산 품종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감 소비를 늘리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봄 무, 꽃대 웃자람 없이 뿌리가 튼튼하려면?

- 봄 재배용 품종 선택, 질소 함량 높은 비료 사용, 비닐로 땅 덮기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 무를 재배할 때 꽃이 피면서 꽃대가 웃자라는(이하 추대)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 무의 '추대'는 꽃눈이 생기고 꽃대가 웃자라는 것을 말하며, 봄철이나 고랭지에서 재배할 때 많이 나타난다. 봄 무가 자라는 초기에 이상저온, 중기·후기 들어 이상고온을 겪었을 때 발생하기 쉽다.
- 추대가 나타나면 꽃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무는 뿌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질기고 맛이 없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 무 종자는 일단 물을 흡수하면 싹을 틔우며, 이후에는 저온의 영향을 받게 돼 13℃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꽃눈이 생긴다.
- 싹이 트고 저온의 영향을 받는 때 장일(長日, 낮의 길이가 일정 시간보다 길어지는 것), 강한 햇볕을 받으면 추대가 촉진된다.
- 봄 무 재배 시 추대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오래된 종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름과 가을 재배용은 추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봄 재배용 품종을 고른다.
- 토양의 질소비료분이 충분하면 추대를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질소의 비율을 약간 높이는 것도 요령이다.
- 저온기에는 흰색 비닐로 땅을 덮어 주면 땅 속 온도가 올라 무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추대를 늦출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멸구류 3종(벼멸구·흰등멸구·애멸구) 유전자 이용 종 판별 기술

- 색 변화를 통해 벼 멸구류 3종 구별 -

- 특정 유전자 영역 증폭기술 중 하나인 LAMP*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멸구류 고유의 DNA 염기서열을 증폭시킨 후 나타나는 색 변화를 통해 벼 멸구류 3종을 구별하는 방법임
- 검출용 튜브에는 LAMP 반응 기본용액과 함께 각 멸구류의 특이 프라이머* 조합이 들어감 여기에 종이 공금한 멸구의 즙액을 넣어 반응시키면 1시간 이내에 색이 변해 어떤 멸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벼멸구 검출용 튜브의 경우, 벼멸구 즙액을 넣었을 때만 초록색으로 변하고 다른 멸구류는 색의 변화가 없음 (현장에서 멸구류 즙액을 이용해 눈으로 확인 가능)

- 벼를 집중고사 시키는 멸구류 -

- 벼멸구와 흰등멸구는 6~7월에 우리나라에 날아와 벼에 알을 낳고 사는데 발생하면 9~10월에 벼를 말라 죽게 하는 피해를 줌
- 애멸구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며, 5월 말과 6월 초에 날아와 주로 벼 이앙 초기에 벼줄무늬잎마름병을 매개해 피해를 입힘



▲ 벼 주요 해충인 벼 멸구류 3종 어른벌레

- 간편한 벼멸구 3종 구별 기술 필요 -

- 해마다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등 벼 멸구류 3종이 날아오는 시기와 규모를 예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중포충망 등 트랩조사를 실시
- 멸구류들은 5mm 미만으로 작아 다른 유사 멸구류와 섞여 있으면 구별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색 변화를 통해 벼 멸구류 3종 구별 -

- 특정 유전자 영역 증폭기술 중 하나인 LAMP*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멸구류 고유의 DNA 염기서열을 증폭시킨 후 나타나는 색 변화를 통해 벼 멸구류 3종을 구별하는 방법임
- 검출용 튜브에는 LAMP 반응 기본용액과 함께 각 멸구류의 특이 프라이머* 조합이 들어감 여기에 종이 공금한 멸구의 즙액을 넣어 반응시키면 1시간 이내에 색이 변해 어떤 멸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됨
- 판별 기술은 멸구류 예찰을 담당하는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멸구류의 유입 시기, 유입량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앞으로의 예측이 가능함
- 이번 기술 개발로 예찰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다량의 샘플 조사를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게 돼 벼 멸구류 3종이 날아오는 시기와 규모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종 판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해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연구개발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서보윤 063-238-3289
-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 올해 시설채소 월동 병해충 심상찮다... 예찰 철저히

- 초기 방제 중요, 시설 내부 환경 관리 신경 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겨울 큰 추위 없이 기온이 오름에 따라 봄철 시설채소 작물에서 겨울을 나는 병해충을 소개하고, 관리를 위한 예찰과 방제 방법을 제시했다.
- 지난겨울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기온은 0.4℃, 최저 기온은 1.0℃ 올랐으며, 영하 10℃를 밑돈 날은 전년보다 하루 적었다. 예년의 19일에 비해 크게 줄어 병해충이 겨울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 시설 온실 내부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해충은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가루이류 등이 있고, 병해는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흰가루병 등이 있다.
- 겨울을 난 해충들은 번식이 빨라져 개체 수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노지나 하우스의 작물로 이동하며 피해를 키운다.
- 이른 봄 온실 내 일교차가 크면 시설 내부 습도가 높아 야간에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등 저온성 곰팡이병이 생기기 쉽다.
- 낮 기온이 오르면 내부가 건조해 흰가루병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 곰팡이병은 온실 내부를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환기와 난방을 조절하면 예방할 수 있으며, 곰팡이의 식물체 침입과 번식을 최소화해야 한다.
- 또한, 병원균이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재배지를 주기적으로 살피며 병 발생 초기에 병든 부위를 즉시 없애 병원균의 밀도를 낮춘다.
- 병해충 약제 방제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한다. 발생 초기에 유효 성분과 계통이 다른 약제를 7일~10일 간격으로 번갈아 뿌리면 효과적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콩과 메밀의 유전정보를 '종자신분증'에 담다

- 종자 특성 · 기능성분 등 한 번에 검색하는 프로그램 모델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농작물의 품종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와 특성을 표준화한 '종자신분증' 모델을 개발했다.
- '종자신분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구성된다. 이름 대신 작물의 품종명을 사용하고, 얼굴 사진은 식물체의 꽃이나 종자 사진, 지문은 품종의 바코드로 표시되는 유전형을 사용한다.
- 작물의 유전형을 분석해 종자의 표현형, 기능성분을 표준화한 뒤 시각화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콩과 메밀의 주요 품종과 유전자원의 종자 특성, 기능성분(이소플라본과 루틴)을 분석해 자료화(DB)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유전형, 표현형, 기능성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 프로그램 모델이다.
- 이 같은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만들어 가공제품에 부착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쉽게 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품종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종자신분증'을 통해 종자 생산지, 가공업체 등 생산 이력을 알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 현재 콩과 메밀의 '종자신분증' 모델은 완성 단계이며, 다른 식량 작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 희석배수 등 사용기준 준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지난 '18.11.5~11.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하였다.
-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월25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모두 해제

-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주의),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2월말→3월말), 방역관리 지속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인 2월25(월) 00시를 기하여 모두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해진 조치이다.
 -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월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 아울러,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한다”

- 국비 포함 사업비 5억 투입...공동육묘장, 농산물 집하장 등 조성-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소라면 가사리(현천 3구) 마을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억 2500만 원 포함 총 사업비 5억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 사업 내용은 친환경 공동육묘장, 농산물 집하장, 유기농업 체험·교육장 조성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늘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사리 마을은 벼 재배면적 43ha중 39ha가 친환경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돼 있다.



*출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순천시에서는 농산물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제조 기술의 습득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2019년 상반기 미생물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수제맥주 제조 등 총 3과정으로 3월 5일 ~ 6월 18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매회 3시간씩 진행되며,
- 지난해 준공된 미생물친환경 농업교육관(승주읍)에서 처음 개강함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발효식품교육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와인, 식초, 맥주, 막걸리를 직접 제조하는 실습을 병행하고 발효식품제조기술을 익혀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은 2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새소식)에 게시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061-749-4682)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순천시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주류, 와인, 식초 음료 시장의 급성장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식품가공과 실용화 기술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농업현장 사례를 발굴,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생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곡성군, 토양개량제 방치 해결 위해 공동살포 추진

- 입면, 겹면 총 851ha에 7만 8981포 공동살포하기로 결정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토양개량제 방치 및 적기 미살포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를 추진하고 있다.
- 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한편,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해 군 전체 농경지를 대상으로 3년에 1번씩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올해 공급 대상은 입면, 겹면으로 총 면적 851ha에 7만 8981포 (20kg)가 지원된다. 하지만 영세농이 많아 자가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 이에 군은 지난 21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농협, 이장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전체 공급량에 대해 살포는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 대행자를 구성해 적기에 살포하기로 결정했다.
-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대 당 600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곡성군은 공동살포가 시행됨에 따라 무상 공급된 토양개량제 방치 문제가 해결되고, 적기적소 살포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친환경 직불제 등 3개 사업...3월 4일부터 29일까지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1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나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인증 농가뿐 아니라 올해 친환경인증을 신규로 추진할 농가와 단지도 신청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분을 국비(100%)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유기 인증 농업인은 5년차(5회)까지 품목에 따라 정해진 지원액을 지급받지만, 6년차부터는 지원액이 절반으로 준다. 무농약 인증 농업인의 경우는 3년차(3회)까지 지원하고, 4년차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횟수 등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한다.
- 군 관계자는 “과수·채소의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ha당 10만 원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화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서두르세요”

- 이행기간 부여 받은 272농가,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

- 해남군은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해남군에서 지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은 총 272농가로, 현재까지 49농가(18%)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대상농가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 또한 적법화 과정이 복잡하고, 이행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복합민원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측량과 설계, 인허가 검토 등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영광군, 새콤달콤 맛있는 유실수 나눠드려요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제74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공원같이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한다.
- 군 공식 행사는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영광군 영광읍 『만남의 광장』에서 열리며 단감(태추), 왕대추, 미니사과, 살구나무 등 유실수 4,000그루를 1인당 2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나눠준다. 각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하며 묘목은 군에서 공급한 철쭉 등 6종 2,000그루다.
- 영광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공원처럼 아름다운 영광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군민이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영광군

장성군, 토양개량제 공급부터 살포까지 '무상지원'

- 1,074ha 농지 공동살포 첫 시행...일손부족 해결 및 지력 개선 효과 클 듯 -

- 장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시행한다.
- 규산질과 석회고토, 패화석 3종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농지에 살포하면 토양의 지력(地力)이 강화되어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어, 건강한 농지 기반 조성을 위해 3년 주기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무상 공급하고 있다.
- 그동안은 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살포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 장성군은 농가가 토양개량제 수령 후 살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살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공동살포제를 도입했다.
- 지난달 30일에 공무원과 농협관계자, 이장, 농업인 등이 참석한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살포단 구성 방안, 살포지원단가 등을 논의했다. 장성군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하고, 3월까지 살포를 완료키로 했다.
- 한편 장성군은 2020년~2022년 공급될 토양개량제를 접수중이다. 신청은 5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 출처 : 장성군

신안군, 포장디자인개발교육 큰 호응속 마쳐

- 신안군은 관내농업인 12명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와 명함디자인, 제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농가브랜드 총 12개를 특허청 상표출원까지 직접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교육생들은 디자인의 힘이 대단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개발된 제품만으로도 신안 농산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졌다고 탄성을 자아냈다. 서재완(신안도담) 교육생은 나만의 브랜드로 제품을 선보일 생각에 몹시 설레고, 본격적으로 제품판매에 나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 신안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교육』성과물전시와 품평회를 갖고 큰 호응속에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갖게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실용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토어팜, sns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일본, 꼭지를 딸 필요 없는 딸기 신품종

- 과일 주스의 최대 체인점인 아오키후르츠홀딩스는 딸기의 신품종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은 농가가 수확할 때, 덩굴에 꼭지가 남아 과실 부분만이 따진다.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꼭지 따는 작업이 필요 없어진다.
- 기초가 되는 품종은 국립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관이 개발했다.
- 실험은 순조로워서 2020년 9월에 품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제1호의 신품종은 2020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해, 후쿠시마 현 내의 농가에 생산을 위탁하여 전량 매입하는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본 전국에 현재 약 2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아오키후르츠는 연간 약 300톤의 딸기를 소비한다.
- 후쿠시마 현 모토미야시의 공장에서 가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는 남미의 칠레산 딸기를 현지에서 순간 냉동하여 수입하고 있다.
- 과일의 비타민, 산소는 펙이나 캔 주스로 만들기 위해 열처리를 하면 파괴되는 것이 많다. 아오키 후르츠는 원료를 열처리 하지 않는 주스가 인기를 얻어, 매출을 늘리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UAE,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의 농작물 재배능력 선보여

- 두바이에 위치한 국제해수농업센터는 해수농업, 물부족, 가뭄 등에 대한 주요 논의를 위해 2월 20일 UAE 농민의 날(UAE Farmer's Day)을 개최하여 100여명의 농민, 과학자, 연구자 및 정부 대표자들을 초청 함
- 현재 UAE에서 해수농업기술로 재배중인 대표적인 곡물은 퀴노아로, ICBA는 2016년부터 지역 농민들에게 내염성 퀴노아 씨앗을 배포하여 매년 수 톤의 퀴노아를 재배하고 있음
- ICBA는 이슬람 개발은행(IDB, Islamic Development Bank)과 UAE 정부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 해수를 이용한 농업기술 개발로 농업용수 및 도시 조경수 부족문제, 국가 식량 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가 됨에 따라 UAE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대량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음
- 2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UAE의 해수농업기술은 일정부분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
- 아직까지 해수농업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는 극도로 제한적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개발이 진행 중인만큼 UAE의 해수농업을 통한 농산물 자급자족이 먼 미래의 일이지만은 않음
- 한국 농산물의 대중동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UAE 해수농업 개발의 진행상황을 항상 예의 주시하며 전략적인 수출 전략 수립 필요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3. 0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기술매도와 치열한 글로벌 공급물량이 가격을 압박하며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밀 선물시장은 28일 하락해 8월 말부터 기술 매도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공급물량이 가격을 압박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6%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요일에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4세션 연속 하락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참모들이 미·중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판타스틱(fantastic)’한 진전을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투자자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미·중 무역거래에 대한 기대를 고수하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후 상승세로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와 선적 데이터에 의하면,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3월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농무부는 1월 대두 분쇄량을 1억8,280만 부셸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국내 종자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력 추진”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25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기업 간담회 -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종자산업진흥센터(전북 김제시)에서 17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했다.
- 세계 종자 산업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해마다 5%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영세성*, 국산 종자 수요 감소, 시장 진입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매출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 : 1175개(전체 종자업 등록 기업 중 87.9%)

-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종자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연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 맞춤형 국산 품종 개발·보급,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등 종자산업의 역량 강화로 품질 좋은 국산 종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사과·배·단감·뽕은감, 농업용 시설과 벚꽃·시설작물 재해보험 2.25일부터 판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뽕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벚꽃재배사 및 벚꽃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 사과·배·단감·뽕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하였다.
 -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하였으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동상해, 극심한 폭염과 여러 차례의 태풍 발생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2019.3.4.~3.29일까지, 전국 73개 시·군 순회 수리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2019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순회수리봉사는 봄철 영농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4주간) 진행되며, 농업인들은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 점검·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3개 시·군의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다.
- 수리봉사 소요비용 중 부품값 및 운반비를 제외하고 정비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하여 수리하게 된다.
-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 순회수리봉사 일정을 안내하여 수리봉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22일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 '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3월4일부터 접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를 3월 4일~3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 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을 지급한다.
-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당 70만 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2.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

- 축산농가 조기 회생경영 안정 위해 가입 확대 유도키로 -

- 전라남도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폭염 등으로부터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조기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다.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 가운데 축종별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장한다.
-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 등 보험사업자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 농가에서 지역축협 등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현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 배운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축 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올 상반기 추경 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2천235호(4천73만 4천 마리)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 폭염 등 자연 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541호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 전라남도

올해 일자리 사업 핵심, “청년·민간일자리 창출”

- 연구 인력 확대, 청년 창업농 정착 돕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 사업은 크게 공공(청년/중장년)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뉘며, 주요 추진 내용은 청년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신규 민간일자리 창출·신규 취업자 정착 지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 청년층 전문일자리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일자리: ('18) 8,078명 → ('19) 9,016 (938증)

** 청년 중심 공공일자리: ('18) 5,379명 → ('19) 5,809 (430증)

** 민간일자리: ('18) 2,699명 → ('19) 3,207 (508증)

◇(신규 취업자 지원) 증가하는 청년취업자 성공적인 정착 지원

*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확대, 가업승계농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등

- 먼저, 농촌진흥청은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에 대해 규모화·전문화 된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의 첨단 융복합 분야에 참여하는 청년층 연구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신규 예산 확보로 2023년까지 580명(연인원 누적)을 육성할 계획이며, 올해 76명을 채용하였다.
- 첨단 농산업 연구를 위해 연구사(2월), 민간경력자(4월) 채용 공고가 있으며, 국내외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원(280여명)은 연중 선발한다.
- 아울러,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사업과 연계로 해외 취업과 창업을 돕는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총 70명 중 하반기에 파견할 32명을 6월에 채용).

-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청년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 지역의 선도농가와 연계한 귀농·귀촌 교육을 비롯해 현장 실습,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청년 창업농의 정착을 돕는다.
- 또한, 귀농창업활성화지원·창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은 기술 지원과 함께 일부 예산 지원도 이루어진다.
- 86개 시군에 설치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제공해 온 가공시설·장비 사용, 가공 기술 교육, 창업 보육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기업체에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농산업체 매출이 향상되고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난해에는 연구 개발한 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과 종자박람회 개최 등으로 44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올해는 농산업체 등에 146억 원을 지원해 민간 분야의 지속가능한 495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면 소득원 확충은 물론, 농업 현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지난해에는 영농법인 등 농업 현장 일자리 1,287개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300개를 목표로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최동순 기획조정관은 "농산업을 도전하는 청년, 농촌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연분홍색 ‘산수유 생막걸리’로 봄을 느껴보세요

-전남도, 3월 대표 전통주로 선정-

- 전라남도는 3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구례 (주)산들(대표 박년두)의 ‘산수유 생막걸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산수유 생막걸리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구례 산동면에서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를 활용해 2015년 출시한 전통주다. 그동안 맛과 품질을 고급화해 2018년 도지사품질인증을 획득한 프리미엄 생막걸리다.
- 산수유는 타닌과 사포닌, 코르닌, 로가닌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A와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계통(전립선), 당뇨병, 고혈압, 여성호르몬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원료다.
- 박년두 대표는 “구례 산동의 지리산 청정수에 백련초와 산수유 진액을 넣어 전통주 제조 방식으로 만든 생막걸리”라며 “붉은 색깔만큼이나 맛 또한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청량감으로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다”고 남다른 자부심을 나타냈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봄꽃을 찾아 남도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산수유 생막걸리를 꼭 한번 마셔보길 권한다”며 “지역 특산주이지만 전국의 식당 및 유통업체서도 주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산수유 생막걸리 소비자 판매가격은 750ml 1병 기준 3천 원으로 전화(061-781-6200)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청렴한세상 - 새학기 청탁금지법 Q&A

새 학기 청탁금지법 Q&A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044-205-707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0

농식품 빅데이터 (수출입)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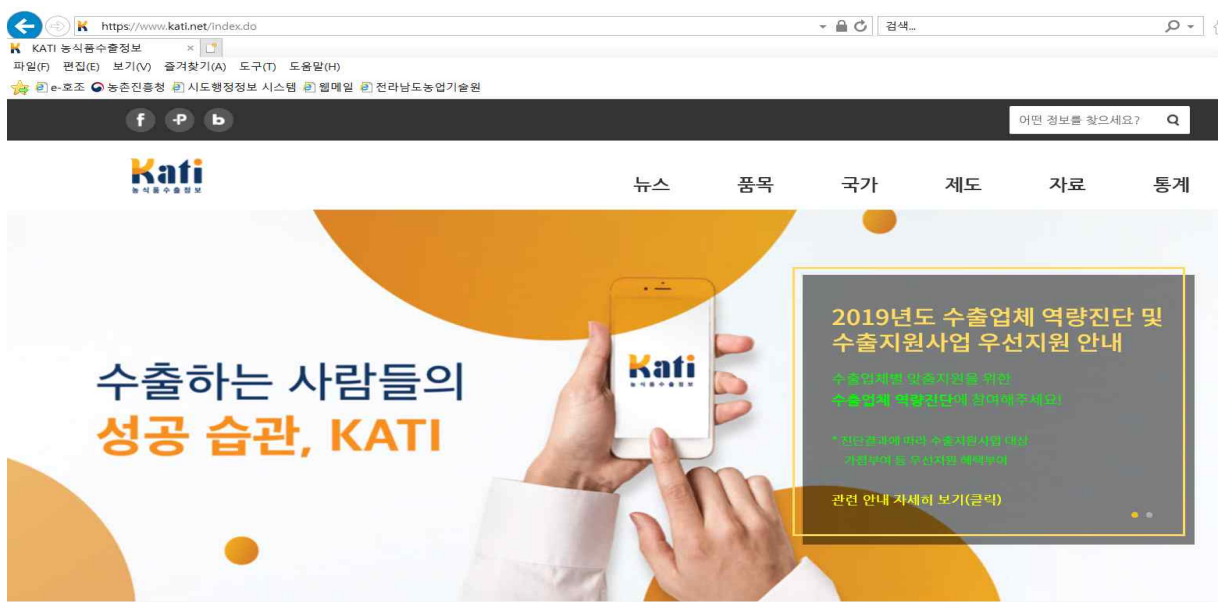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에 필요한 수출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정동향, 농림어업 고용동향분석,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다.
- 세계농업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국제기구 동향, 국제 농업 정보, 세계 농업 브리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세계농업정보에서는 (월간)세계농업정보, 세계농업전망, 해외 주재관 리포트, 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외곡물시장정보에서는 세계곡물의 가격동향, 수급동향, 관련지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농사에 필요한 수출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수출정보에서는 뉴스, 품목, 국가, 제도, 자료, 통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 뉴스의 수출뉴스에서는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은 채소, 과실/임산물, 신선기타, 가공, 수산물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생산동향과 유통 및 소비동향, 수출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는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로 분류되어 각 나라별로 국가개요, 농업현황, 유통현황, 농식품소비현황, 유의/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도는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인증,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는 발간책자, 보고서, 스토리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 통계는 월별, 지역별, 기간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VOL. 223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